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 제6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 영적 싸움의 실상을 가르치심

**시작하는 말:** 사람들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쟁의 장면들과 복수의 내용들을 대할 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의심한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철저히 진멸하고 어린아이라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잔인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그런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대 원칙을 따라 그 뜻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자.

### 1. 사람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세상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 곧 선과 악의 대결장으로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계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계 12:7).

● 창세기의 이 말씀과 꼭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계12:1-7이다. 위의 말씀에 등장 인물이 넷이다. 여자, 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다. 그런데 계12장에도 해를 옷 입은 여자, 여자가 낳은 아들, 용이 있다. 창세기 3장이나 계시록에서 용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은 여자의 후손 곧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뱀의 후손은 그냥 뱀의 후원자로 있을 뿐 실제적으로 여자의 후손과 싸우는 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도 실제적인 등장인물은 셋인 셈이다.

계시록과 창세기의 말씀을 비교하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다 패한 용이 세상에 와서 아담과 여자를 꾀어 자기편을 만들자 미가엘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계시록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며,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계시되신 분이다. 이런 사실에 의하여 하늘에서 용과 싸우신 미가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여

자의 후손과 용 곧 뱀이 싸우는 전장(戰場)이 된 것이다.

[계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요일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욥7:1]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나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나 (舊譯: 인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어찌 전장(戰場)에 있음과 같지 아니하며).

**2. 그러므로 성경은 전쟁 이야기가 많고 그 전쟁에서 사망을 멸하시고 생명의 의와 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삼상17: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대하20:15]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창14:14-20]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삼백 십팔 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벨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 살렘 왕 벨기세텍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벨기세텍에게 주었더라.

●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만군”이란 말은 “차바”(צבא)인데, 이것은 “전쟁” “군대”의 뜻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יהוה צבאות) 여호와 체바(צב) 하나님은 군대의 여호와, 전쟁의 여호와 등의 뜻이 된다. 이것은 죄의 세상과 죄의 창시자 사단과 끝까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위에서 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말씀이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수5:13-15]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14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시24:8-10]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  
시리로다 10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3.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므로 애굽과 하나님 간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출14: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78:52,53]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3 저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  
몰되었도다.

[시136:15]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  
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레20:26]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  
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 출애굽기에 기록된 출애굽 장면을 읽으면(출14장) 바로가 홍해에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시편 136:15에는 바로가 홍해에서 죽은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였다. 하  
나님과 사단의 싸움에서 사단의 대리인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던 바로도 홍해에서  
죽었다. 사단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

**4. 이런 싸움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될 때에 세상과 죄의 세력에 대하여 싸  
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가르치며, 그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것을 가르친  
다.**

[벤전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골1: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  
으니.

[딤후6: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엡6:11-17]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 우  
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고후10:3-6]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딤후2:3,4]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요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실천하는 생활을 할 때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물리치는 투쟁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 싸움에는 원수 사단의 세력을 멸절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5. 하나님께서 대적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것으로 영원한 평화를 성취하는 것을 표상한다.**

[신7: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20:17]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삼상25:28]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나1:9]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피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6. 이스라엘이 대적을 진멸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평화는 위협되었고 전쟁은 다시 일어났으며 이스라엘은 자주 정복당하였다.**

[삿2:1-3]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

중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쩐이뇨 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시106:34-42] 저희가 여호와와 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35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36 그 우상들을 섬기므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37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38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39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4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시 41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매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42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시78:57-64]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궤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58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59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시 60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61 그 능력 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62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시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63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64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 두 가지 진멸이 있다. 하나는 그 존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요, 하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를 진멸하는 것이다. 라합이 바로 그런 예이다.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별을 듣고 완전히 항복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완전히 굴복하든지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면 그 존재를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다. 진멸하라는 말씀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서 본래 없던 것같이 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며, 진멸된 민족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을 끝까지 거절한 민족들이다. 그들은 그 존재를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께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겔18: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 하나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두시고 430년간 훈련하시면서 애굽을 위시하여 주변 나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기를 기다리신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주위 열방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충분하고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러나 주위의 열방들은 그것을 완전히 외면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학대하며 진멸하려고 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여 완전히 사망이 된 그들을 장례로 처리하는 것만이 남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일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굴복을 당하며 평화를 잃어버렸다.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영원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7.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되 철저히 싸워서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가르치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그를 정복할 것이다.**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창4: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히12: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눅13:3,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8. 결국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은 죄와 싸우되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그의 품성과 생애에서 결코 티끌만한 죄도 용납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말4: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37:10]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이다.

[롬6:12]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엡5:26,27]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벧후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벧전1: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를 온전히 정복할 때 영원하고 진정한 평화가 이를 것이다. 죄를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죄가 자라서 우리를 정복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또 싸워야 한다. 이렇게 순환하면 그것이야말로 악순환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죄(갓난 아이)라도 반석(그리스도)에 메어쳐서 진멸해야 하는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철저히 거절한 열방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표상적으로 교훈하는 것이다.

**마치는 말:**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어떤 전쟁이라도, 그것은 영원한 나라와 평화를 교란하는 어떤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만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며, 그것은 죄와 죄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멸절을 뜻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생활을 하는 것이며 철저히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사건임을 명심하고 성경의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성경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살아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요5:24,25, 마 8:21,22). 그러므로 진멸하라는 말씀은 그들을 살리려고 해도 살아나기를 거절하는 존재들을 정중히 장사(葬事)해 주라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미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장사 해 주는 것이 사랑이요 예의가 아닌가? 견강부회(牽強附會)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생명과 사망의 도리를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에 친숙한 사람이 되어 있다.